

패션업계 '성수동' 집결... 상품판매 넘어 브랜드 가치 공유

상반기 팝업 오픈 개수 성수동 1위
아떼 바네사브루노, H2000명 방문
뉴발란스, 228평 플래그십스토어
오픈 첫날에 방문객 2000명 돌파



이랜드 뉴발란스,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 전경. /이랜드월드

패션업체들이 성수에 몰리고 있다. 외국인 방문객을 공략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에서 특별한 고객 경험을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패션업체들이 성수에 연이어 매장을 개점하면서 브랜드 경쟁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성수동은 2024년 하반기에도 명실상부한 패션의 성지였다.

온라인 마케팅 업체 아이보스가 2024년 상반기 677개 팝업 스토어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지역별 팝업스토어 오픈 개수가 가장 많은 지역 1위가 성수로 나타났다. 동시에 카테고리별 분류에 따르면 패션 잡화 분야

가 18.9%로, 캐릭터 IP 팝업스토어 (20.1%)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실제 LF의 가방 브랜드 '아떼 바네사 브루노'는 지난 12일 최근 가을 겨울 상품을 출시하고 성수동에서만 두 번째 팝업스토어를 열었다. 팝업 공간은 '가을의 프리ل 파티'라는 주제로 로맨틱한 디자인과 소재를 적용한 제품들을 직접 착용할 수 있게 구성됐다. 팝업 오픈 후

주말 동안 2000여명의 고객들이 방문하고 대기 인원 발생했다는 게 LF 측의 설명이다.

이랜드월드의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는 지난 16일 성수동에 약 228평 규모의 대규모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했다. 지하 1층, 지상 1층, 2층, 루프탑으로 구성된 뉴발란스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뉴발란스 직영 매장 중 대규모

공간이다.

오픈 첫 날 방문객이 2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이곳에서 뉴발란스 상품의 프리미엄 제품군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는 게 이랜드월드 측의 설명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이번 성수 플래그십 스토어는 메인인 유에스(US), 메인인 유케이(UK) 등 프리미엄 상품을 주로 선보이는 매장"이라고 소개했다.

뉴발란스에 따르면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플래그십 매장 건물 1층은 팝업 공간으로 운영한다. 이곳에서 뉴발란스의 제품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뉴발란스 993아트갤러리: 과거와 현재의 예술적 조우' 행사를 진행한다.

패션업체들이 성수로 집결하는 이유에는 성수가 2030과 외국인 관광객의 교집합 지역이라는 분석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플래그십 매장 설립 지역으로 성수를 선택한 것은 젊은 층의 내국인과 함께 외국인을 함께 타겟팅할 수 있어서"라고 말했다.

LF 관계자 역시 "시간이 지나도 성수는 패션의 성지가 여전히 맞다. 성수는 유행이 빠른 20대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며 "지난 3월 성수에서 팝업을 진행했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 저번에도 이번에도 외국인 방문객이 많아 성수를 주요 입지로 선택했다"고 전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 단순 상품 판매를 넘어 브랜드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전략도 있다는 게 업계 측 분석이다.

이랜드월드 관계자는 "성수 플래그십 매장은 상품 판매 집중이라기보다 전시와 문화 콘텐츠를 공유하기 위한 장이기도 하다"며 "다양한 전시와 브랜드 아카이빙 공간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이제는 상품만이 아닌 고객 경험이 중요해진 시대"라며 "그런 점에서 유동 인구가 많은 성수에 다양한 팝업스토어와 브랜드 아카이빙 공간이 함께 구성된 매장들이 생겨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한국엔컴퍼니, VCD 시스템 등 AI성과 알려

테크노플렉스에 산업장관 방문
AI기술 성과 발표·기술도 시연
'가상 타이어'로 시간·자원 절약



한국엔컴퍼니그룹의 AI 기술 시연을 참관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도입을 통한 성과를 공유했다.

한국엔컴퍼니그룹은 17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테크노플렉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방문한 가운데 AI 기술 적용 성과를 발표하고 해당 기술을 시연했다.

산업부 장관 방문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연구개발(R&D) 과정에 AI를 적극 도입해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으로 선정되어 산업부의 현장방문 요청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한국엔컴퍼니그룹은 조현범 회장의 주도하에 '데이터/AI드리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AI·빅데이터 전문 기관과의 파트너십 강화, 전문인력 양성, 첨단 인프라 구축 등으로 디지털 전환을 실현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9년에 AI 기반의 '버추얼 컴파운드 디자인(이하 VCD)'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

다. 이는 AI가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타이어 컴파운드 특성을 예측해 최적의 컴파운드 조합법을 만드는 기술로 개발 기간을 최대 50%까지 단축하는 성과를 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VCD를 비롯해 타이어 전 개발 단계에서 '가상 타이어 개발' 기술을 적용해 실물 제품 개발 방식보다 시간과 자원을 절약하고 있다.

이 외에도 타이어 패턴 디자인을 스스로 학습해 생성하는 '패턴 생성 AI 모델'과 전 세계 고객의 타이어 성능 리뷰를 분석하는 'VOC 분석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도입하

고 있다.

그룹 차원에서는 AI 기반 사내 디지털 서비스도 도입했다. 대화형 AI 서비스 챗HK(ChatHK), 번역 전문 서비스 컴HK(CommHK), 사내 메신저 AI 번역 서비스까지 총 3종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안덕근 장관은 "한국엔컴퍼니그룹이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지능을 도전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연구개발 속도를 높이고 혁신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는 등 우리 산업 전반에 귀감이 되고 있다"고 이날 발표와 시연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TXR로보틱스, 로봇융합연구소 준공

연구개발·생산역량 결집

유진그룹 계열 물류·로봇 자동화 전문기업 TXR로보틱스가 스마트공장 및 로봇융합연구소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17일 유진그룹에 따르면 TXR로보틱스는 지난 15일 오전 부산시 강서구 생곡동에서 엄인섭 TXR로보틱스대표

와 임직원,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진행했다.

이날 준공한 TXR로보틱스의 스마트공장 및 로봇융합연구소는 연면적 3472㎡ 규모에 지상 3층의 스마트공장 및 지상 4층의 사무동으로 이뤄져 있다. 물류·로봇 자동화설비 연구 및 생산 기지로 연구개발과 생산역량을 이곳에 결집했다.

TXR로보틱스는 유진그룹의 물류계열이었던 태성시스템이 올해 상반기로봇 자동화 전문회사인 로탈을 합병해 사명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한 회사다.

TXR로보틱스는 대표 제품으로 다양한 화물을 빠르게 분류하는 휠스터, 버티컬틸트트레이스터, 플립스터 등과 무인으로 이송 및 제조 작업을 수행하는 AMR(Autonomous Mobile Robot), AGV(Automated Guided Vehicle), 모바일 매니퓰레이터 등을 보유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CJ대한통운-KT&G, 수소화물차 2대 도입

11t 규모로 완충시 570km 주행
대전공장 고정 노선 투입키로

CJ대한통운이 KT&G와 친환경 물류를 위해 손을 잡았다.

CJ대한통운은 KT&G 물류과정에 11톤(t) 수소화물차 2대를 새로 투입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날 오전 KT&G 대전공장에서 양사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ESG경영 수소화물차 운영 오픈식' 행사를 가졌다.

신규 수소화물차는 11t 급으로 완충시 570km를 주행할 수 있다. 연료인 수소의 안정적 수급을 고려해 인근 청주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공장의 고정노선에 투입했다.

차량 측면과 후면에는 수소화물차를 알리는 로고와 더불어 'CJ대한통운과 KT&G는 친환경 물류에 함께 앞장서

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양사는 온실가스 저감 등 ESG경영에 뜻을 같이했다. 상호 협의를 통해 이번 차량 투입 및 운영을 결정하게 됐다. KT&G 물류에 수소화물차가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온실가스 저감과 친환경 동력수단 인지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J대한통운은 수소물류 선점에 적극 나서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앞서 지난해 6월 기체수소 운송사업에 진출했다. 최근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 운송사업을 개시하면서 수소물류 전환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했다.

친환경 수소모빌리티로의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1년 11t급 수소화물차 두대를 도입해 택배화물의 운송에 투입했으며 물류센터에서 운영 중인 화물차와 지게차 등의 수소 동력 장비 전환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9월 자동차 수출액 55억 달러 '역대최고'

산업부, 전년 대비 4.9% 증가
올해 누적 수출액 529억 달러

9월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9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전기차 신차인 기아 EV3 수출 본격화, SUV 수출 확대, 한국지엠의 수출 회복세 등이 수출 실적을 견인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9월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동월 대비 4.9% 증가한 55억달러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 누적 수출액도 전년동월 대비 1.6% 증가한 529억달러로 역대 최고다.

친환경차(승용 기준) 수출은 1년 전보다 12.3% 증가한 19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만에 플러스로 전환됐

다.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1.9% 증가한 6만2388대다. 특히, 투싼, 쏘나타, 카니발 등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전년 대비 75.6% 급증한 10억1000만달러로 수출 증가에 크게 기여했다.

승용차 모델별 수출량은 트렉스(2만2436대), 코나(1만7488대), 아반떼(1만6252대), 투싼(1만3077대), 트레일블레이저(1만2931대), 쉐라티드(9789대), 니로(9238대), 스포티지(7982대), 모닝(7557대), 쏘나타(7414대) 순이다.

자동차 생산량은 30만7000대로 1년 전보다 1.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보다 조업일수는 평일 기준 1일 감소했으나, 주요 완성차사는 해외 수요를 바탕으로 생산을 확대하면서 3개월만에 월 생산 30만대를 회복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